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역할과 노력

손 동 기 한국외대 EU연구소 자문위원

본 브리핑은 지방자치 이후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역할과 중요성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화 이후 문화정책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졌다. 프랑스에서 중앙정부가 국가의 문화정체성 유지 및 계승 또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잘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속관계가 아닌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서로 상호보완하며 시민들의 문화권을 증진 시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의 문화향유를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 역량이나 결정 방식에 대해 공공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 이외의 다른 사회정책은 처벌이란 방식을 통해서 개인의 현명한 선택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문화와 관련된 공공정책은 개인에게 권한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공공문화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고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

다. 실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다 문화 및 예술에 두 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 ■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문화지출

프랑스 문화부의 '학술·전망·통계부(Département des études, de la prospective et des statistiques, DEPS)와 문화정책연구소(Observato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지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국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응답한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은 문화에 대한 지출을 증가했다고 답했고, 3개 지역은 감소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치(dispositif spécial d'aide aux activités artistiques et culturelles)를 시행했다. 행정구역별로 기금 조성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조사대상 지역 기준).

- 레지옹(région): 10 곳 중 8곳
- 데парта르망(départements): 41곳 중 24곳

- 메트로폴(Métropoles): 13곳 중 5곳
- 대도시(grandes Villes): 18곳 중 8곳

이외에 인구 1만명~2만 도시와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을 자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국에서 중앙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문화예술 피해에 대응했다.

예로,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에 일-드-프랑스는 3,850만 유로, 파리는 2,600만 유로를 문화분야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서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 수입 감소 지원과 임대료 지원을 했다. 또한 리옹시는 2020년 ‘문화비상기금(Fonds d’urgence culturel)’으로 2,922,647유로를 책정했고, 2021년에는 400만 유로로 증액했다. 리옹 시는 문화비상기금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를 유지하고 예술가의 위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예술 활동 유지 및 회복 지원, 예술가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리옹을 중심으로 하는 리옹 메트로폴(Métropole de Lyon)은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87,500유로와 기관이나 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300,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문화지출을 줄이기보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 ■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금

프랑스 중앙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2018년 ‘인센티브 및 파트너십 기금(Fonds incitatif et partenarial, 이하 FIP)’을 설립했다. 이 기금을 통해서 2,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문화유산에 대한 577건의 작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6,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 형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FIP를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30~50%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문화유산을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FIP의 레버리지 효과는 1.10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에서 1유로를 투자하면, 1.10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주가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문화유산 관련 재정을 위해 2018년 ‘문화유산 복권(loto du patrimoine)’을 만들었다. 문화유산 복권은 프랑스 문화유산의 상징적인 달인 9월에 추첨이 이뤄진다. 최소 베탱 금액은 2.2유로인데 이 중에 0.5354유로가 자동으로 기금에 기부된다. 2021년에 1억 유로 이상 기금이 모금되었다.

프랑스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일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간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유산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 프랑스 문화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방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공공교부금과 세수감소에 직면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수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3,500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있고, 공공문화지출의 44%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프랑스는 2003년부터 기업 메세나에 대한 강력한 조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메세나를 활용한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는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유리하다. 한 예가 파리의 Louis Vuitton Foundation이다. 미술관 건립과 소장품은 LVMH 그룹의 CEO인 Bernard Arnault가 기여했고, 파리는 부지를 제공했다. 파리 이외에도 Metz(2016년), Nantes 및 Nantes Métropole(2017년), 마르세유(마르세유 재단과 함께 2020년 창설), 리옹 시(2021년) 재단을 설립해서 지역 문화를 위한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러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중형 도시 또는 도시 간 연합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은 지역 문화유산 관련 필요한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개적인 요청을 통해서 개인이나 지역 기업들의 기부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부금을 통해서 문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 5월 12일에 발표된 상원의 ‘문화의 새로운 영토(Les nouveaux territoires de la culture)’ 보고서는 문화분권화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도전이 영토적 형평성을 생성하는 보다 포괄적인 문화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부처 간 협력(특히 교육), 전략적 정보 및 문화 산업 규제를 위해 중앙 행정부의 임무를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과 협력하고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지역의 매력 그리고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문화적 개입을 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영화, 박물관 또는 공연예

술 부문별 기관을 통해 지역 계획 및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

프랑스 문화정책은 좋은 모델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참고자료 역할은 해왔다. 하지만 문화유산과 창조 분야의 공공지출이 경제 위기와 예산 부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예는 매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자치의 첫걸음은 지역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스스로 찾고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분권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 참고자료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Monuments-Sites/Actualites/Fonds-incitatif-et-partenarial-pour-les-petites-communes> (검색일 2022년 11월 24일)

### [APUR 홈페이지]

<https://www.apur.org/fr/nos-travaux/culture-diversement-impactee-crise-liee-covid-19-ile-france> (검색일 2022년 12월 2일)

### [ARTCENA 홈페이지]

<https://www.artcena.fr/actualites/vie-professionnelle/les-depenses-culturelles-des-collectivites-territoriales-2019-2021> (검색일 2022년 11월 24일)

### [OPC 홈페이지]

<https://www.observatoire-culture.net/villes-face-mecenes-privés-culture-promesses-alliances-inedites/> (검색일 2022년 11월 24일)

### [기사]

Budget de la Culture 2023 : faire plus avec les territoires(27/09/2022), la gazette, Available: <https://www.lagazettedescommunes.com/827150/budget-de-la-culture-2023-faire-plus-avec-les-territoires/> (검색일 2022년 11월 24일)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기(202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역할과 노력”.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1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동기 [dongkison@hotmail.com](mailto:dongkison@hotmail.com)  
ACKIS브리핑 작성 2022.12.27.

#프랑스 #공공문화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문화비상기금  
#메세나